

國語學에 있어서 漢字研究의 位相

俞 昌 均*

< 목 차 >

- I. 序 說
- II. 漢字의 性格
- III. 漢字音 研究의 方向과 位相

I. 序 說

어떤 研究에 있어서나 대상으로 하는 資料는 매우 重要的 의미를 가진다. 資料를 어느 정도 풍부하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언어 연구에 있어서도 자료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國語의 연구에 있어서 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문헌자료와 비문헌자료의 둘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문헌자료는 다시 漢字에 의한 表記資料와 한글에 의한 表記資料로 나눌 수 있으며, 비문헌자료는 현재의 생생한 음성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음성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현대어의 연구는 새로운 언어이론의 도입과 더불어 비교적 활기를 띠었으나, 최근에 이르러는 문헌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도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어 발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언어의 공시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생생한 음성언어의 연구는 현대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보다 바른 언어생활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는 하나, 고대어나 중세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현대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 전 계명대학교

것은 국어의 본질적인 특징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대의 국어는 현대에 이르러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의 문화와 사고를 통하여 자라온 역사적 배경 위에서 서 있다는 엄연한 사실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대어를 탐색하는 경우에도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 현대에 이른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함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 날 국어의 연구는 주로 문헌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에는 자료의 수집·검증·해석·비판의 전과정이 문헌학적 방법의 원용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소홀히 다룬 감이 없지 않다. 또한 문헌자료의 경우, 자료해석의 편의성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글 문헌자료에 치우쳐 온 감이 없지 않다. 그것은 15세기에 들어와 새로이 표음문자가 제정되고 그것을 이용한 구어의 표기가 가능해졌고, 또한 유동적이던 음성언어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음운적 표기가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연구가 용이하였기 때문이었다. 15세기의 한글 창제는 구전적이던 음성언어가 문자로 정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국어를 개발 재창조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한글의 창제는 국어학사뿐만 아니라 국어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15세기에 한글로 기록된 언어는 국어의 통시적 연구의 기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이 기점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국어의 발달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고 역으로 이 기점에서 고대어로의 소급 추정이 유리한 점이 적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國語史의 입장에서 보면 장구한 국어의 역사에서 볼 때 시간적으로는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전의 장구한 언어의 실상을 이해하는데는 漢字를 이용한 표기자료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의 국어자료로는 漢字에 의한 것 뿐이기 때문이다. 漢字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를 그 기원 전후로 잡을 때, 한글표기자료는 불과 500여년에 지나지 않으나 漢字表記資料는 실로 그보다 3배나 긴 시간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漢字의 表記資料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의 연구는 통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또 하나 漢字表記資料의 중요성은 고대국어의 연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漢字는 文字生活의 중

요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현대의 언어생활에서도 한자를 매개로한 造語가 한글과 相補의인 입장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한자를 매개로한 造語가 表記에 있어서 한글로 바꾸어 쓴다하더라도 이해의 면에서는 여전히 漢字의 뜻을 매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漢字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며, 또한 국어의 공시적 연구에 있어서나 통시적 연구에 있어서나 漢字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새겨들 필요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사실 국어의 연구에 있어서 漢字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서는 결국 緣木求魚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근대에 와서 한글의 전용운동이 결과적으로는 漢字教育을 소홀히 하게 되고, 나아가 學者들의 이에 대한 연구마저 등한시하는 결과를 가져 왔으니, 이래서 어제 국어의 참된 모습이 탐구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글의 전용은 전용으로서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 2천여년에 걸쳐 국어생활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또한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있어서의 국어 연구의 자료는 오로지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國語學에 있어서 漢字에 대한 깊은 이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5세기 이전의 국어연구의 자료는 전적으로 漢字를 매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자료는 지극히 빈약하기는 하나 우리가 正確하게만 판독한다면 그 나름대로 특단의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漢字에 관한 研究는 국어학에서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國語史는 記述의 첫 단계인 古代國語의 자료가 漢字로 표기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에 관심을 가진 이라면 누구라도 漢字와 漢字音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경향은 이점에 대해 너무도 소홀히 다룬 감이 없지 않다. 지금까지의 경향은 15세기 한글이 창제된 이후 한글로 표기된 표음을 기준으로 기술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15세기의 한자음이지 그 보다 10세기나 20세기 앞선 시기의 한자음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흡사 10세기 전이나 10세기 후나 항상 똑같은 자음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漢字도 文字이다. 文字는 말소리를 적는 도구라는 점에서는 한글과 같다. 말은 늘 변화한다. 그런 점에서 한글은 말이 변하면 변한대로 글자를 바꾸면 되지만 漢字는 表語文字이기 때문

에 같은 글자이면서도 말이 변하면 글자를 바꾸는 대신에 글자에 붙어 있는 字音を 바꾸게 된다. 이것은 언어의 변화에 따라 字音도 변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字音은 언어의 변화에 따라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15세기의 漢字音이 곧 古代語의 단계에서 같은 것일 수 없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한자에 대한 연구는 古代語의 연구에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어에서도 국어 어휘의 대다수가 한자로 이루어져 있고, 새로운 조어들이 또한 한자를 매개로 하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자에 관한 깊은 이해는 국어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국어와 한자의 상호관계를 고찰하고 그것이 국어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漢字와 한글, 漢字와 국어는 相補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漢字와 한글과의 관계는 文字의 측면에서, 漢字와 국어는 言語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다.

漢字와 한글의 관계는 근대 한글 전용으로 말미암아 많이 퇴색되어 버렸다. 그러나 15세기에서 20세기 전반까지는 文字生活의 측면에서도 양자는 여전히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옛날처럼 生産의 일 수는 없다.

漢字語와 국어의 相補性은 여전히 生産의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우리는 漢字를 매개로 이루어진 한자어를 배제하고는 아무리 한글의 전용시대라 하더라도 언어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자어만으로도 국어생활이 가능하나 하면 그렇지 않다. 많은 고유의 국어(비한자어)가 한자어와 함께 쓰일 뿐만 아니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굴절어미 등은 여전히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어느 하나도 배제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한자어와 국어, 한자와 한글의 상보성은 인류에 비유하면 부부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부부는 서로 협력해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그 가정은 번창할 수 있다. 부부생활의 조화는 서로 맞은 편에 자극을 주기도 하고 자극을 받기도 한다. 이 자극에 의해 가정은 번영하고 발전한다. 이와 전혀 같은 사실을 우리는 한자어와 국어, 한자와 한글 사이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사실은 국어의 발전에

漢字와 漢字音이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음을 뜻한다.

첫째는 많은 어휘가 漢字語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漢字가 국어의 발전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하겠다. 만약 한자가 없었더라면 현재의 우리 국어는 지금과 많이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른다.

둘째로 古代國語는 여러 단계에 걸친 음운변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짐작컨대 원시국어는 알타이어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有聲性を 자질로 하는 대립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뒤에 이것은 有氣性を 자질로 하는 대립관계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자극소는 분명히 漢字音이 준 자극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셋째로, 우리의 姓名, 地名, 官職名 등이 모두 漢字와 漢字語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非言語的인 요소로 간주할 수 있으나, 이러한 漢語形이 국어의 語彙生成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할 수 있다.

넷째로, 15세기에 들어와 한글을 창제하게 되는데, 이의 동기나 그 형성과정에서 漢字의 영향을 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경우에 漢字를 통하여 국어를 관찰하고, 그것을 매개로 국어를 이해하려고 한 사실들도 漢字가 국어에 끼친 중요한 영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漢字가 국어의 발달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그것은 15세기 한글로 된 문헌에 나타난 형태가 가장 이른 시기의 漢字音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거기에서 유추한 형태의 탐구에 한정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 이러한 방법은 결코 옳은 것일 수 없다.

漢字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학의 입장에서 국어의 발전에 등장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자체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데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漢字는 그 形成에 있어서나 그 字音의 변천에 있어서 독자적인 체계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漢字는 中國의 文字로 인식되어 왔다. 또 현재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漢字가 中國語를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최초의 字形의 구성까지도 中國語를 매개로 中國語를 위해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이 점에 대해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漢字의 최초의 형성이 殷의 甲骨文까지 소급한다

고 할 때, 이 단계에서는 韓國語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¹⁾ 그 뒤 이것이 中國語에 전용됨으로써 그 字音이 中國語의 구조에 적합하게 개조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온 것은 中國語로 재조직화된 것으로 완전히 중국어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漢字音은 재조직화한 中國語에 의한 자음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자음이 중국어에 의해 재조직화한 이후는 통시적으로 중국어의 변화와 생명을 같이 한다. 이것은 중국어의 변화에 따라 한자음도 변함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음도 통시적으로 시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공시적으로도 지역간의 방언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통시적으로 봤을 때 한 시기와 공식적인 한 지역의 음을 필자는 우리 한자음에서 基層音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다. 즉 우리가 어떤 대상이 되는 字音을 생각할 때는 먼저 이 기층음이 어떤 성격인 것이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漢字音 研究에서는 이 기층음에 대한 先行研究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漢字音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이들의 중요한 과오의 하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자음에 대한 연구는 말할 것도 없이 이 先行 研究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II. 漢字의 性格

우리는 언어를 음성기호의 체계라고 한다. 이것은 언어를 단위 상호간에 일정한 체계가 있음을 뜻한다. 문자는 언어를 轉寫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언어기호의 투영체로서의 체계를 갖춘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한 자도 언어를 전사하는 기호라는 점에서 마땅히 일정한 체계를 갖춘 것임을 뜻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발생적으로 볼 때 한자는 그림 문자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글처럼 정연한 체계를 갖춘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언어기호와 결합해서 언어전사의 기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부터는 피전사어의 체계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1) 拙著：《文字에 숨겨진 民族의 淵源》，서울, 集文堂, 1999. 8.

여기에서 이러한 논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漢字는 의미단위에서 볼 때는 고립적이지만 언어음전사의 기호라는 입장에서 보면 모든 字音의 형태가 결코 고립적인 것이 아니며 전체의 체계 속에 한 단위로서의 존재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자로 표기된 어떤 語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 字音은 고립적으로 그 어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자음이 가진 전체의 체계속의 한 단위로써 파악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표기된 그 語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쓰인 字音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를 미리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질이라는 말은 거기에 나타난 요소들이 어느 시대의 방언의 체계를 반영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漢字音도 言語音의 投影體라는 점에서 그 체제가 音韻論에서 논의되는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漢字音은 宋代 等韻學이 발달한 이래로 그 나름대로 하나의 독특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적어도 漢字音에 관심을 가진 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기초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대어나 借字表記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갖추지 아니한 채, 15세기 문헌의 형태를 근거로 자료의 성격도 구명하지 않은 채 연구에서부터 먼저 착수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나,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한자는 우리의 언어생활과는 떼어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에 대한 연구는 국어학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할 만하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는 한자의 기본 성격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그것이 국어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자리매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文字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말소리를 적는 기호로 생각한다. 또 이런 생각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漢字의 경우에는 처음의 발생이 말을 적는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漢字를 일반적으로 그림문자라고 한다. 이것은 말을 개재시키지 않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임을 뜻한다. 말도 사물이나 생각을 음성으로 나타냈다는 점에서는 그림문자와 상통한다고 하겠으나, 그것이 처음부터 말 그 자체를 전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림문자가 문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은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 둘이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문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언어와 漢字와의 결합이 보다 자유스러우며 편의적으로 얼마든지 쉽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자와의 결합음은 그 자의 음가를 지시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漢字音의 流動性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漢字音은 표상하고자 하는 언어에 따라 얼마든지 그 음이 바뀔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가 漢字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創造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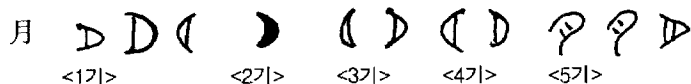
漢字를 오로지 언어를 전사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물론 漢字도 文字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文字와 마찬가지로 언어의 전사를 목적으로 한 사실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漢字는 처음부터 사물이나 생각을 표상하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창조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림이 사물이나 생각을 묘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화가의 그림은 암묵중에 여러가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한자도 그림문자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그림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어떤 생각을 표상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漢字는 처음부터 그 글자를 만든 사람의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사물을 묘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하늘에 눈부시게 떠 있는 해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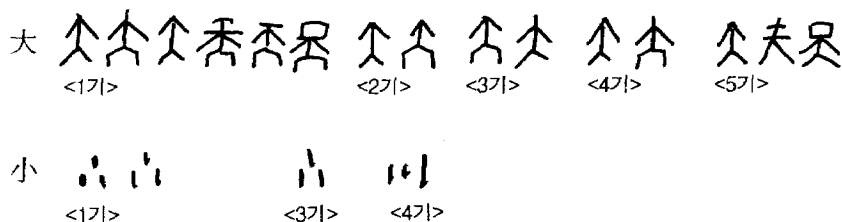
이것은 甲骨文이 보여주는 상형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 형태가 시대에 따라 점차 변형되어 갔다는 사실이다. 즉 <1기>는 외곽이 □(方形)으로 되어 있으며, 그것이 점차 ○(圓形)으로 바뀌어 간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외곽은 무엇을 뜻하며, 꼭 안에 들어 있는 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에의 변화는 그들의 우주관이 바뀔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꼭은 우주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최초에는 우주가 유한적인 방형(□)이었던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것이 점차 광대무변한 것으로 발달해 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꼭안의 점은 해를 표상한 것이나 그것이 점이 아니고 「-」처럼 횡선으로 된 것

도 특이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반달(半月)의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어떤 사물을 상형할 때 그 특징을 어떤 시각에서 포착할 것인가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月은 작은 우주 안에 한 점으로 표상함으로써 그것이 우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이려 했다. 月도 우주 속의 한 존재임이 틀림없으나, 온달에서 반달로 이지러진 상태를 상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와 같이 사물을 직접 형상화한 상형자에도 거기에는 창조적 창의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指事字에 이르면 그 창조적 능력을 더욱 강하게 발휘한다. 가령 사물의 大·小는 다분히 추상적이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상형해야 할까.



大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正面에서 형상화한 것이다. 大의 뜻을 어찌서 사람의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을까? 사람이 大라는 뜻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說文》에서는 ‘天大地大人亦大，故大象人形’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람이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뜻에서 大를 상형함에 人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甲骨文字典》에서는 ‘與象幼兒形之 𠂔(子)相對，基本義爲大人’이라고 하여 大小의 관계를 형상화하려 했다는 것이다.²⁾ 어쨌든 大가 비록 天大 地大人 大人이라는 우주관을 바탕으로 한 것이든, 혹은 어린애와 어른의 크기의 대칭에서 취한 것이든, 그것이 처음부터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펼

2) 徐中舒 主編, 《甲骨文字典》, 1990. 9. 中國·四川辭典出版社

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小는 ‘大小’와 같이 大와 대칭대는 뜻을 가졌다. 그럼에도 甲骨文에서의 字形의 형상은 결코 大와 짝을 이루지 않았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小는 세 개의 작은 점으로서 표시했다. 이것은 이리저리 흐트러진 점으로써 微細함을 표상하고자 한 것이다.

모든 사물과 사고의 유형을 이러한 단순형으로 상형한 것이 아니었음은 일찍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한자의 유형에서 보면 象形字와 指事字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단순형은 전체의 字類에서 볼 때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說文解字》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자류에서 象形은 3.05%, 指事는 0.44%, 會意는 3.1%, 形聲은 90.00%, 轉注 1.57%, 假借 2.44%로 計算되는데 指事와 象形을 복합시킨 會意와 形聲이 93.10%에 달한다는 사실은 創造의 力量의 발로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단순자형과 복합자형 사이에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사람을 나타내는 개념으로는 男과 女가 있고, 父와 母가 있다. 실제로 이 대상은 사람이라는 공통성에서 외부에 나타난 형상에서 구별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들의 구별을 위해서는 이들이 지닌 신체상의 어떤 특징이나 행위 등을 관찰해서 거기에서 차별성을 발견해야만 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특별한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男 畝田男

女 𡥉 𡥊 𡥋 𡥌 𡥍 𡥎 𡥏 𡥐 𡥑

<1기>

<2기>

<3기>

<4기>

男은 田과 𠂔의 복합으로 형성시켰다. 田은 농경지이며 𠂔는 耒(따비)를 나타낸다. 이것은 밭에 나가 따비로 농사짓는 사람에게 취하여,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일하는 것과 구별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것은 男과 女의 차이를 그 직분에서 찾으려고 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男은 복합형을 취했고 女는 단순형을 취했다. 이것은 단순형과 복합형의 사이에 특별한 한계가 있지 않았음을

뜻한다.

父	𠂇	𠂇	𠂇
母	𠂇	𠂇	𠂇
	<1기>	<2기>	<4기>

父에 대해 郭沫若은 𠂇의 初文, 石器時代 남자가 도끼를 쥐고 일을 부리는 모양을 상형한 것이라고 했다.³⁾ 즉 父는 𠂇로서 그 뜻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母는 女로서 대신하려 했던 것이다. 甲骨文에서는 母와 女는 같은 방법으로 상형했다. 다만 𠂇의 점은 젖(乳)을 나타내는 데 이는 女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初文의 형성에 있어서는 그들의 무한한 상상력이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漢字가 그 발생에서부터 무한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복합형은 무한대의 字形의 形成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너절하게 늘어놓은 까닭은 漢字는 단순한 언어의 표기 도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창조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점이 다른 문자와 다른 특징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리하여 漢字는 그 자체가 새로운 말을 창조해 내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漢字를 단순히 언어를 표기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바꾸어 말하면 漢字는 文字이기 이전 살아 숨쉬는 生命力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현대에 있어서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말들이 漢字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휘들이 엄청나게 많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새로 만들어진 언어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思考가 形成됨을 뜻하는 것이다.

初文에 있어서도 먼저 字形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음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말이 생겨난 흔적이 있다. 이것은 字形이 먼저 갖추어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말이 그 자형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가령 狄이라는 자는 北狄, 이른바 북쪽에 살던 종족을 뜻하는 말이다. 이 자의 상고음을 d'iek로 재구

3) 郭沫若, 《甲骨文文字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1952.

하는데 이의 初音은 dak로 소급되는 것으로 본다. 우리의 증기음은 ‘덕’이다. 이 d’iek이라는 말은 狄이라는 글자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자의 음이 어째서 d’iek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筆者는 본래 北狄은 北翟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翟의 상고음은 d’iok로 재구하나, 이것은 鳥의 初音 *tərg에서 변한 것으로 본다.⁴⁾는 국어의 ‘뚝’과 어원을 같이하는 것이다. 짐작컨대 翟과 鳥는 초음이 같았을 것이다. 따라서 北狄이라는 말은 北鳥→北翟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이 민족이 새(鳥)를 숭상하는 토tem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시 狄으로 바뀐 것은 이 민족이 그 뒤 불(火)을 발견한 최초의 종족이었음을 암시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狄은 犬과 火의 합성이다. 중국측의 기록에서 합성한 犬에 중점을 두고 이민족이 야만인이었기 때문이라 하고, 여기에 火가 합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會意字로 犬과 火는 전혀 같은 비중을 가지는 것이다. 狄은 방위로는 北에 해당한다. 北은 色으로 黑이다. 이 黑이 또한 火와 합성한 까닭을 주목할 것이다. 黑이 어떻게 해서 火와 결합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어쨌든 犬과 火를 합성시켜 dərək로 읽게 된 것은 이 말의 어원이 鳥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여기에 새로이 狄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자의 구성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하나의 예라고 하겠다.

漢字는 또한 一定한 字數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必要하다면 얼마든지 그 개념에 상응하는 字形을 만들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새로운 字形을 만들 수 있음은 本宗인 중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베트남의 字喃이나 女眞의 文字들은 漢字의 구성법을 심분 이용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高句麗 지명에 遼城郡(一云 加阿忽)이 있는데 이 遼는 새로 지은 자형이다. 또 <普賢十願歌>의 <遇賊歌>의 ‘瀟陵’의 ‘瀟’ 역시 새로 지은 字形이다. 이러한 新字는 그 뒤에도 많이 만들어졌다. 日本에서도 峠나 畠과 같은 것이 모두 새로 만들어 쓴 것이다.

이와 같이 漢字는 새로운 글자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도 있고, 漢字를 이용한 새로운 말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漢字는 단순히 말을

4) 筆者는 鳥의 初音은 *tərg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拙著 : 文字에 숨겨진 民族淵源 참조.

표기하는 도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을 창조하고 새로운 사고를 형성시킬 수 있는 기능을 아울러 가졌음을 뜻한다. 필자는 이것을 漢字의 創造性이라 부르기로 했다.

2. 表音의 自律性

字形과 字音과의 관계는 恣意的이다. 이점이 表音文字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漢字는 表象되는 語形이 바뀌면 그에 따라 字音도 변한다. 현재의 漢字音은 中國語와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을 사용하는 측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江은 예컨대 중국어의 경우 kǔng(上古) > kǎng(中古) > kiang(近古) > jiang(現代)와 같이 변한 것이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그 음이 변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 한국에서는 ‘강’, 일본에서는 kou로 읽는다. ‘강’은 중국에 있어서의 中古音과 일치하고 일본의 kou는 kaŋ > kau와 같은 발달에 의한 것으로, 문미의 -u는 -ŋ이 일본어에서 수용될 수 없기 때문에 바뀐 것이다. 또 中國語와 다른 언어에 속하는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경우에 뜻을 취하는 일이 있다. 이것을 訓借라고 하거니와 鄉歌에서 ‘사롬’을 ‘人音’으로 적었는데 이것은 ‘人’을 ‘사롬’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증좌이다. 일본에서 이것을 hito로 읽는 것은 같은 이치이다. 이와 같이 漢字의 音은 결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측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쓸 수 있다. 이것을 表音의 自律性이라 한다.

漢字와 韓國語와의 관계는 숙명적이다. 흔히 우리는 漢字는 중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中國의 文字이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筆者는 이 文字는 최초의 韓人에 의해 만들어진 韓國의 文字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는 달리 논한 바 있기로⁵⁾ 여기서 再論하는 것을 피하거니와 적어도 漢字의 初文인 甲骨文의 字音은 韓國語와의 결합에 의한 것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한 흔적은 漢字의 字音에 광범하게 잔존하고 있으며, 그것이 보여주는 형태적 특징은 韓國語와의 결합 때문이라는 사실을 떠나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예컨대 複聲母가 왜 생겨났으며, 上古音에 잔존해 있던 有聲音 g, d, b, z가 왜 사라졌으며, 中古音에 존재했던 全濁音이 왜 나타

5) 俞昌均: 《文字에 숨겨진 民族의 淵源》, 서울, 集文堂.

났다가 즉시 사라졌으며, 上古音에 존재하던 韻尾 陰聲 -g, -d, -b 대 入聲 -k, -t, -p가 어떻게 대립이 가능했던 것일까? 또 卍聲에 있어서 같은 자가 卜/ㄱ, ㄴ/ㄷ, ㆍ/ㅡ와 같은 兩音を 가졌던 것일까? 즉 ‘仙’ 과 ‘汕’ 은 다 같이 ‘山’ 을 聲符로 하면서 ‘仙’ 은 ‘선’, ‘汕’ 은 ‘산’ 이다. 이는 ‘山’ 이 卜-/-ㄱ-의 두 모음을 가졌음을 뜻한다. 또 ‘重’ 과 ‘動’ 의 경우에도 ‘重’ 은 ‘뚱’, ‘動’ 은 ‘동’ 이다. 이는 ‘重’ 이 ㄱ-/-ㄷ-의 두 모음을 가졌음을 뜻한다. 같은 자가 왜 이러한 두 모음을 가졌을까? 여기에 큰 비밀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韓國語와의 관계에 서지 않으면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聲母에 관해서 복성모는 적어도 初音이 單音節의이 아니라 多音節의이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국어의 경우 卍世語에 ‘썰·밭·밭·썩’ 과 같은 語頭子音群은 처음 두 子音 사이의 모음의 약화삭제에 의한 것으로 본래는 2音節이었음이 분명하다. 漢字的 複聲母도 같은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多音節的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韻尾子音에 있어서 -k/-g, -t/-d, -p/-b의 대립은 이들의 음성실현이 外破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外破的이었다는 것은 그 뒤의 이들의 변화의 추이로 보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g의 경우 -g> -u, -g> -j, -g> -∅로 변한다. -g가 이와 같이 다양한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은 外破할 때에 동반하는 滑音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丁邦新은 -g> -u는 -g^w와 같이 표기한다. 이 경우에 -k도 -k^w가 된다. 따라서 위에 보인 예들은 -g^w, -g^w와 같이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더 소급하면 -gu, -gi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도 字音이 처음에는 多音節的이었음을 뜻한다. 우리가 아는 한 中國語는 孤立的이며 單音節的이다. 그 初音이 多音節的이었다는 것은 그의 初音이 中國語的이 아니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多音節的이었던 字音이 中國에 들어가 中國語와 결합함으로써 中國語的인 單音節形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한다.

또 上古에 있었던 有聲音이 왜 없어졌으며, 그 대신 中古音에 나타난 全濁音이 왜 나타났다가 없어졌을까? 筆者의 관점으로 中國語는 본래 有氣性を 자질로 하는 대립체계였으며, 韓國語는 有聲性を 자질로 하는 체계였을 것이다. 이에 有聲性的인 체계가 有氣性的인 체계에 들어감으로써 그 자음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을 것이다. 中國語는 有聲性的인 자질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有

聲系列은 일부는 없어지고 일부는 有聲에 有氣가 결합한 全濁音이 생겨나고, 일부는 -u, -n, -m과 같은 鼻音으로 바뀌었다. 全濁音은 有聲에 有氣가 결합한 것인데, 대립하는 有聲音을 가지지 않으면 이러한 것을 가진 中古音은 분명히 기형적인 체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母音에 있어서 一字가 -a/-e-, -o/-u-, -ə/-i-와 같은 兩音을 가진 것도 母音調和의 잔재로 이해할 때 그 이유가 분명해진다. 筆者는 初音에 있어서의 母音의 기저형은 -a-, -o-, -ə-, -i-의 넷 뿐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음성 실현에 있어서는 -a-는 -a/-e-로, -o-는 -o/-u-로, -ə-는 -ə/-i-로, -i-는 -i/-i-와 같이 兩音이 서로 교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모음조화에 의한 것이다. 모음조화는 어형이 다음절적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것을 단음절화함으로써 異音이 대립음소로 바뀌으로써 이러한 兩音이 생겨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적지 않으나 여기서는 그것을 전부 열거할 수 없다. 어쨌든 이러한 사실들은 甲骨文의 초음이 韓國語의이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것이 中國語에 들어가 中國語的인 것으로 재구조화함으로써 秦이래로 中國語의 音韻體系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字音이 다른 언어의 音韻과 쉽게 結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가 自律性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自律性은 그 뒤의 字音의 借用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이 문자를 漢字라 부르는 것은 漢代에 들어와 갖추어진 楷書 이후의 字形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시기는 BC 1세기까지 소급하나, 일반에 널리 보급된 것은 AD 3·4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이때의 字音은 漢音이 기준이 되었던 것이나, 그 뒤 중국에 있어서의 字音이 변하면 우리의 字音도 거기에 따라 변해왔지만 AD 6세기경부터는 완전히 우리의 음운체계와 결합한 한국어적인 漢字音이 생겨나 中國語的 음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했던 까닭은 字音이 가진 自律性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自律性은 字形과 字音과의 결합이 절대 뗄 수 없는 고정적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언어음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字音도 변하며, 이 문자가 다른 언어에 수용되어 借用文字로 쓰이게 되면 본래의 음을 따라서 借用되어진 언어와 결합해서 새로운 字音을 형성하게 된다. 이 점은 우리가 漢字音을 연구하는 경우에 첫째로 가져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3. 相補性

한자와 한글, 한자어와 국어는 상보성적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한자어와 고유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비율은 7 대 3으로 한자어가 절대우위를 차지한다. 이것은 한자어를 떠나서는 언어생활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뜻한다. 양자의 비중이야 어떠한 현실적으로 그 어휘의 빈도면에서 볼 때 어느 편도 배제할 수 없는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상보성이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그 어느 한 쪽도 배제되어서는 안될 성질의 것이다. 언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호 의사 전달과 교환에 있을진대 원만한 언어생활의 수행을 위해서는 양자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을 충분히 살리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곧 양자의 상보서적 특징에 따른 것임을 뜻한다.

한자어는 본래 한자를 매개로 하여 차용되었거나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한자를 떠난 漢字語라는 것은 그 자체가 존재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한자를 떠난 한자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경우에도 표현과 해석이 의식적으로는 한자를 매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글 세대들이 언어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글의 전용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국어가 가진 구조적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韓國語와 漢字語가 상보적인 것과 같이 한자와 한글의 관계도 상보적이라 할 수 있다. 국어 속에 아무리 한자어가 많다 하더라도 한자어만으로 국어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많은 어휘들이 한자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한자만으로 국어의 표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통사적 단계에서도 굴절에 소요되는 모든 요소를 한자로 표기할 수는 없다. 지난 날 한자만을 유일한 표기의 수단으로 삼던 시기에 있어서는 史讀라 해서 개량된 字音과 字形을 이용하여 거기에 충당한 일이 있으나, 그것은 한국어가 가진 본질적인 특징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었다. 결국 15세기에 들어와 한글의 창제를 보게 된 것은 이러한 상보적 관계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Ⅲ. 漢字音 研究의 方向과 位相

앞에서 漢字와 漢字音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왔다. 어쨌든 어휘, 그리고 우리의 지명, 인명 등 거의 모든 고유명사가 한자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國語學에서 한자에 관한 연구도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近代 한글 전용이 시행되고부터는 한글 전용론자들이 한자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국어에 그토록 많은 한자어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학자들도 덩달아 한자연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漢字 사용의 가부를 떠나서라도 한자가 들어온 이래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 왔고 대다수가 한자어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여기서 떠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입장에서 국어학에서 한자연구의 위상을 재정립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1) 漢字研究의 必要性

漢字研究의 必要性은 통시적 측면과 공시적 측면의 두 축에서 생각할 수 있다. 통시적으로는 古代語나 中世語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한자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국어사의 경우 古代語에 대한 보다 정밀한 재구를 통하지 않고, 국어의 淵源이나 15세기에 이르기까지의 발달을 기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이 시대 언어의 기술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전부 漢字를 빌어서 쓰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적으로 현대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어휘의 70%가 한자어인 점에서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과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어교육에 있어서 漢字를 가르치고 그 漢字를 매개로 한 수단을 강구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실험적 연구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언어정책에서 한글 전용과 한자의 혼용에 대한 대립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며 감정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코 감정적인 정서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다 이성적인 판단은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많았어도 실질적으로 깊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언어의 발달에 있어서 차용어가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무관심했다. 아니 무관심했다기보다는 전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한자가 다른 언어에 차용되었을 때는 몇 가지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본래의 字音도 점차 그 언어의 체계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필자는 土着化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에서 본래의音を 基層音이라고 할 때 土着化音은 어떤 것은 基層音과 같더라도 그것은 체계적으로 基層音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土着化는 유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관용적으로 반복 사용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土着化는 첫째는 基層音이 그 언어의 음운체계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언어의 음운체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국의 상고음에는 유성음계열 g, d, b, ɟ, z와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술되는데, 이 유성음계열이 언제까지 존재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좀 더 규명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는 즉시 소멸해 버렸다. 중고음에서는 유성유기음이러는 기이한 계열이 등장했다가 이것도 바로 소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의 北京語에서는 이 유성성을 자질로 하는 음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는 유성성을 자질로 하는 계열은 중국어에서는 수용될 수 없었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상고음을 재구함에 있어서 유사성을 자질로 하는 계열이 존재했다는 것은 殷代 甲骨文의 초문의 단계에 있었던 것이 중국어에 들어가 중국어음에로의 토착화과정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前期古代中國語의 단계에서는 有氣音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나 後期古代國語의 단계에서는 有氣音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古代 後期에 와서 새로이 有氣音 계열이 발생했음을 뜻하는데 이러한 有氣音의 발생은 결합적이든 수의적이든 그것은 한자음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또 국어가 알타이어로서 본래는 有聲音을 자질로 하는 대립의 체계이었을 것인데 이 대립의 소멸도 한자음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漢字音은 借用語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탐색도 국어 이해의 심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2) 研究方法에 대한 反省

지금까지 古代語의 研究를 위한 漢字音의 해석을 보면 그것은 15세기 이후 한글로 표음된 한자음을 무비판적으로 이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여기에서는 紙面關係로 자세히 논할 수는 없으나, 이것은 언어가 늘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라 하겠다. 언어의 변화에 따라 한자음도 변한다. 그러나 한자음의 경우는 특히 기층음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는 동시에 국어어로 토착화한 후에는 국어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양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자어 내지 한자로 표기된 언어의 연구에 항상 같은 음형을 적용한다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한자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층음의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은 말할 必要도 없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한자음운학이나 중국음운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로 緣木求魚와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古代語의 연구에 가장 좋은 자료로 이용되는 것은 《三國史記》 <地理志>의 지명이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지명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에 대한 선행 연구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卷35·37>에 나타난 高句麗 지명의 예부터 검토해 보자.

水城郡 本高句麗賈忽 景德王改名 今水州

이 짝막한 글은 동일 지명의 시대적 변천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위의 글을 시대별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賈忽(高句麗) → 水城(新羅景德王) → 水州(麗初)

여기에서 이 기록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초의 표기 賈忽은 이미 고구려 측에 의해 그때부터 있었던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賈忽이 音借냐 訓借냐 하는 문제에서 비롯하여 賈忽이 音借라면 그것은 당연히 고구려 시대의 한자음에 의한 것임이 틀림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고구려 시대의 한자음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15세기에 賈가 ‘미’로

되어 있으니 賈는 ‘미’ 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통시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구려의 표기에 속하는 것을 15세기의 자음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신라어 水의 ‘물’ 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卷37>에 의하면 ‘賈忽 一云水城’ 이라 한 것을 보면 ‘賈 → 水’ 는 이미 고구려 때부터의 표기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賈를 ‘미’ 로 읽는다면 ‘賈省郡 一云馬忽’ 의 ‘賈 → 馬’ 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南川縣(一云南賈) → 黃武’ 의 경우는 ‘賈’ 가 신라의 개정지명에서 ‘武’ 로 바뀌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賈召忽 一云彌鄒忽’ 에서는 ‘賈 → 彌’ 와 같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賈가 彌와 등가적이었음을 뜻한다. 여기에서 彌를 기준으로 賈의 音價를 추리해 보자.

上古	前漢	後漢	魏晉	南北	中古
mjar	mjar	mjei	mjei	mjæi	mje
멀(물)	멀(물)	메	메	미	미

위의 추정음은 丁邦新에 따른 것이며⁶⁾ 아래의 한글은 그에 상응하는 표음을 해 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前漢代の 음이 국어의 ‘물(水)’ 과 음성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三國遺事》에 의하면 《古記》를 인용하여 檀君에 관한 기록을 비교적 자세히 적고 있다. 이 기록에서 檀君은 나라이름을 朝鮮이라 하고 阿斯達에 도움을 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李內燾는 朝鮮이라는 이름이 阿斯達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朝 → 阿斯’ 로 阿斯는 ‘아스’ 로 일본어 朝의訓 asa와 일치한다 하고 국어의 ‘아츨’ 은 asa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 朝鮮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던 시대에 阿斯가 과연 asa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15세기의 한자음을 기준으로 하면 阿는 ‘하’, 斯는 ‘스’ 이니 阿斯는 ‘아스’ 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朝鮮이라는 말은 殷末·周初에 이미 朝鮮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어찌 15세기의 음이 그보다 수 천년 앞서 시기의 음과 같다고 할 수 있는가? 阿는 《說文》에 ‘阿 大陵曰阿, 從卩可聲’ 이라

6) 丁邦新, 《魏晉音韻研究》, 台北, 1975, 中央語言歷史研究所

했다. 이것은 阿가 ㅂ와 可의 합성으로 된 形聲字이며, 可가 聲符가 된다는 것이다. 《說文》은 漢代에 된 것인데 ‘可’를 聲符로 잡은 그때까지도 ‘阿’가 ‘可’와 등가적이었음을 뜻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斯에 대해서도 《說文》은 ‘斯 析也 從斤其聲’이라 했다. 이것은 其가 聲符가 된 것으로 우리 15세기의 ‘스’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阿斯의 漢代의 음 可其와 같다고 봐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朝鮮이라는 이름이 阿스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뜻한다. 또 《三國遺事》에서는 ‘阿斯達 又名弓忽 又今旃達’이라고도 했다. 이것은 阿斯達과는 별개의 이름으로 보인다. ‘弓’의 상고음은 kjwǎng으로 재구하며 중고음으로 東韻에 속한다. 여기 운부의 모음 iwǎng은 보다 이른 시기에는 *-om/*-jom과 같은 것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əm > -jwom > -ung과 같이 발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것에 風이 있다. 風의 상고음은 *pljəm으로 추정되며 이는 *pləm > pjom > pjom > pjung과 같이 발달한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운부에 속하는 熊도 *gəm > gjowm > jung과 같이 발달했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상고음의 단계에 모음의 발달로 인해 운미 -m이 이화작용에 의해 -ng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初音의 核母를 *-o-로 할 것이냐 *-ə-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으나 어느 편을 취해도 좋다. 여기에서 우리의 弓의 가장 이른시기의 음이 *gəm/*gjom과 같은 것이었다고 추정하면 弓을 旃達로 바꾸어 적을 수 있었음도 이해할 수 있다. 旃의 상고음은 kjəm, 旃는 우리의 俗字로 ‘며’로 읽는다. 여기에 우리는 俗字가 등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弥의 訛誤일 가능성이 있다. 弥는 彌의 略字이며 彌의 상고음은 mjār로 이는 mjār > mjjē: > mi와 같이 발달한 것이다. 여기에서 弓彌는 komi와 같이 되어 국어의 곰(熊)과 형태가 일치한다. 이것은 弓忽(今彌達)이 곰골(곰달)과 같이 되어 熊谷(熊山)임을 뜻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국어의 표기에 한자를 이용한 것을 借字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字音뿐만 아니라 字義에 따른 訓을 이용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어느 편이든 관습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약속 밑에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는 항상 엄격함과 원칙과 원인에 따라 행해진다. 예컨대 鄉歌의 표기에는 ㄱ가 ‘ㄹ’의 표기에 이용되고 있다. 어째서 ㄱ가 ‘ㄹ’로 쓰였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태도이다. 이것의 初音은 *sl-와 같은 복성모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뒤 s-와 l-로 분화하여 方言的 차이를 보

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ㄹ’에 관용하게 된 것은 기층음 ㄹ-을 수용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라 하겠다.

IV. 맺 음 말

이상 간략하게 국어학에 있어서 漢字에 관한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살펴 보았다. 한자와 한자음, 그의 사용이 국어의 발달에 끼친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라 해도 좋다. 그럼에도 언어생활에서 한글의 전용을 강조하는 나머지 한자는 마치 적대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그에 연구마저 소홀하게 된 것은 국어학의 발전을 위해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근자에 와서 口訣學會가 생기고 地名學會가 생겨 국어학의 다방면적 발전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으나, 이러한分野의 연구도 선행연구로서 漢字에 대한 연구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국에 있어서의 음운학의 변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종전과 같이 15세기 이후의 한자음을 기준으로 연구한다면 그 성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